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KIA '잠수함' 침몰

신용운 삼성이적·손영민 임의탈퇴·차정민 방출·홍성민 롯데로

10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 '잠수함 전설' 이강철 코치 넥센으로

홍성민의 이탈과 함께 KIA의 '잠수함 부대'가 흔들리고 있다.

타이거즈는 '원조 잠수함' 이강철을 필두로 해서 신용운·손영민으로 이어진 막강 잠수함 계보를 가지고 있다.

이강철 넥센 수석코치는 타이거즈 19번을 달고 10년 연속 두 자릿수 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19번은 이후 신용운, 손영민에게 물려졌고 이들은 '마당쇠' 역할을 하며 KIA의 불펜을 책임졌다.

이들 외에 언더 유동훈이 2009년 철벽 마무리로 팀의 V10을 이끌었고, 올 시즌에는 신인 사이드암 홍성민이 배짱투를 과시하며 잠수함 라인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2012시즌이 끝난 지금 KIA의 잠수함 라인은 사실상 해체됐다.

지난해 신용운이 2차 드래프트로 삼성의 지명을 받아 이적했고, 올 시즌 중반에는 손영민이 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으며 임의탈퇴 됐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KIA 투수들을 조련했던 이강철 코치가 넥센 수석코치로 자리를 옮겼고, 사이드암 차정민은 방출됐다.

가능성을 보여준 홍성민까지 김주찬의 보상선수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다.

홍성민은 KIA 코칭스태프가 20인의 보호선수 명단을 놓고 가장 고심했던 선수다. 선동열 감독의 입맛에 딱 맞는 강심장 투수였던 만큼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최종명단 완성에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좌완 기근과 함께 줄부상에 신음하는 중심타선, 내야의 얇은 선수층이라는 조건에 홍성민은 20인의 명단에서 탈락했다.

홍성민의 이탈과 함께 맏형 유동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FA로 팀에 잔류하게 된 유동훈은 올 시즌 부진까지 만회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잠수함 자원은 내년 시즌 팀에 재합류 하게 되는 전우엽. 전태현에서 개명을 한 전우엽은 내년 2월 말 공익근무를 끝내고 돌아온다.

팔꿈치 수술과 함께 군복무를 선택했던 전우엽은 하프 피칭을 소화하고 있다. 제대가 임박하면서 주말이면 광주를 찾아 재활군에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꼬마 잠수함' 박준표는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2013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지명을 받은 동강대 출신의 박준표는 KIA와의 연습경기에서 커브, 싱커, 슬라이더 등의 변화구를 구사하며 조범현 전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재목이다. 하지만 팔꿈치가 좋지 않아 재활군에 머물고 있다. 잠수함들을 떠난 보낸 KIA, 19번의 계보를 이을 선수를 발굴하는 게 불펜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영민

10구단 창단 미루면 WBC 등 전면 불참

프로야구 선수협

프로야구 선수들이 10구단 창단을 촉구하며 또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0구단 창단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각종 한국야구위원회(KBO) 주관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KBO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 방안이 보류되자 선수협회는 올스타전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당시에는 KBO가 한국시리즈가 끝난 뒤 10구단 창단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수협회를 설득해 보이콧이 철회됐다. 그러나 이날 선수협회는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한달이 지나도록 KBO와 구단들은 10구단 창단을 결정하기는커녕, 연내 이사회 소집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다시 강경책을 들고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선수협회의 단체행동에 KBO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 조율이 안돼 날짜를 정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10구단 창단을 추진하겠다는 KBO의 의지와 달리 9개 구단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야구계 인사들에 따르면 LG와 넥센, NC 구단은 10구단 창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 두산, KIA, 한화는 중도적인 입장이고 삼성과 롯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BO가 구단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출범 31년 만에 골든글러브 행사가 취소되는 불상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루수 안치홍

유격수 김선빈

외야수 이용규

외야수 김원섭

외야수 김주찬

호랑이 황금장갑 몇 개 낄까

안치홍·김선빈·이용규·김원섭·김주찬 후보로

오늘부터 기자단 등 투표 … 12월 11일 수상발표

KIA 안치홍과 이용규가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노린다.

한국야구위원회가 28일 2012시즌 골든글러브에 도전할 후보 38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KIA에서는 안치홍(2루수), 김선빈(유격수), 김원섭·이용규·김주찬(이상 외야수)등 5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투수 4관왕을 달성한 윤석민과 함께 안치홍·이용규가 골든글러브를 들어올렸다.

골든글러브 후보는 출장 경기수와 공격·수비 성적 등 각 포지션별 기준에 따라 선정됐으며, 페넌트레이스 개인타이틀 1위 선수는 후보에 자동 포함된다.

투수 부문에서는 삼성이 다승왕 장원삼·세이브왕 오승환·승률왕 탈보트 등 3명의 후보를 냈다. 방어율 1위에 빛나는 넥센 나이트, 한화 류현진, SK 박희수, 두산 프록터도 마운드 정상 자리를 겨냥한다.

포수 골든글러브는 삼성 진갑용, 두산 양의지, 롯데 강민호의 3파전이다.

1루수 부문에서는 2012시즌 MVP 박병호(홈런·타점·장타율)가 타율·출루율 1위를 차지한 한화 김태균 그리고 SK 박정권, 롯데 박종윤과 경쟁을 벌인다.

지난 시즌 입단 3년 만에 든 글러브를 들어올렸던 KIA 안치홍은 2루수 부문에서 SK 정근우, 넥센 서건창과 대결을 벌인다.

3루수 후보는 삼성 박석민, SK 최정, 롯데 황재균, LG 정성훈 등 4명으로 압축됐다.

KIA 김선빈이 버티고 있는 유격수 자리에서는 삼성 김상수, 넥센 강정호, 한화 이대수가 후보로 나선다.

3개의 골든글러브가 걸린 외야수 부문에서는 KIA가 이용규·김원섭 그리고 '신입 호랑이' 김주찬까지 3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삼성 박한이, SK 김강민, 두산 김현수, 롯데 손아섭, LG 박용택, 이병규(9) 등도 후보로 선정돼 9명의 선수가 경쟁을 벌인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삼성 이승엽과 두산 홍성흔, LG 이진영, NC 이호준 등이 골든글러브에 도전한다.

한편 골든글러브 투표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프로야구 취재 기자단과 사진기자, 중계 담당 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 3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예의 수상자는 12월11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에서 열리는 2012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반인 골퍼 평균 男 90.9·女 94.8타

한국 남성 골퍼의 표준 모델은 40대 자영업자로 평균 구력 9.4년에 90.9타를 치는 사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골프다이제스트와 스카이72 골프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을 이용한 129만1204명의 나이와 직업, 골프 스타일과 비거리, 점수, 사용하는 골프용품 등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6년간 내장객 가운데 93.4%인 120만571명이 남자였고 나이로 따지면 40대가 66만28명으로 총 조사 대상자의 51.3%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50대가 27만781명(20.8%), 30대가 25만4132명(1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자가 18.4%로 가장 많았고 직종으로 분류하면 건설 분야가 9.5%로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 7.7%, 금융 6%, 유통 및 무역 5.1% 순이었다.

남성 내장객은 구력 9.4년에 90.9타를 치는 보기 플레이어가 평균을 기록했고 여성 내장객은 평균 구력 7.7년에 점수는 94.8타였다. 드라이브샷 비거리는 총 25만23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남자는 평균 215.8야드, 여자는 168.3야드가 나왔다.

최근 3년간 남성 골퍼를 대상으로 한 골프용품 브랜드 조사 결과 드라이버는 테일러메이드가 24%로 최다를 기록했고 아이언은 미즈노(24%), 웨지와 퍼터는 타이틀리스트(19%·23%)가 1위에 올랐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드라이버 젝시오(18%)가 1위를 차지했고 아이언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미즈노(11%) 사용자가 가장 많았다. 웨지는 야마하(10%), 퍼터는 타이틀리스트(10%)가 1위였다. /연합뉴스